
‘어깨’에 대한 명상

유 준 ·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강사, 문학 평론가

‘어깨’라는 것을, 신은 왜 인간에게 만들어 넣은 것일까? 개운할 때보다
빠근한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은 어깨. 두드리고 주무르고 다독거리 보아
도 지쳐 투덜대는 어깨. 생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책임
과 피로의 거처. ‘어깨’라는 말 속에는 쟁기를 끄는 자신의 느릿한 걸음을
말 없이 바라보는 소의 슬프고도 진중한 눈망울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
리는 어깨를 움츠리고, 축 늘어뜨리기도 하며, 또 추스르거나 다시 일으
키기도 한다. 이러한 어깨 위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균형을 잃어버린 내가 당신의 어깨를 본다

내일은 소리 없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나는 초조를 잃어버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더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첫눈이 쌓여서 가는 길이 환하고 넓어질 것 같다

소처럼 미안하게 걸어 다니는 일이 이어지지만 끝까지 정든 집으로
몸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를 닮아가는 구두짝을 우스꽝스럽게 벗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밤늦게 지붕을 걸어 다니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껴안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벽에 걸어 놓은 옷에서 흘러내리는 주름 같은 말을 알아듣고

벗어 놓은 양말에 뭉쳐진 검은 언어를 잘 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매트리스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삐걱삐걱 고백을 오늘 밤에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요구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어깨는 초라한 편지를 쓰는 불빛을 걱정하다가
아득한 절벽에 놓인 방의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

자기 중심을 잃어버린 별들이 옥상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

뒤척이는 불빛이 나비처럼 긴 밤을 간다

- 이기인, 〈어깨 위로 떨어지는 사소한 편지〉)

“내가(/내게) 악함을 내보여도 내게(/내가)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아도르노)라는 말이 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이웃
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태도’(키르케고르)라는 말도 있
다. 요즘 한 가수가 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열정적으로 불러 화두가
되고 있는 어느 노래의 가사를 빌려 이야기해 보자면 “내가 너의 벗 되
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
래여.”라는 말 역시 같은 의미이리라. 그리고 이를 다시 우리의 맥락 속
에서 ‘어깨’를 통해 말해 보자면, ‘병든 어깨에 정든 어깨를 내어 주는 것’
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이는 모두 이기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사소한
편지〉를 읽으며 든 생각들이다.

시 속에서 ‘나’는 기우뚱, 균형을 잃고 있다. 왜일까? 전면에 드러나 있
지는 않지만 시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와 같은 시집에 실려 있는 다른 시
편들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희끗한 삶의 상처’(〈첫눈은 간밤에
너무 많은 슬픔을 사냥하였다〉, 54쪽) 때문 아닐까? ‘기다란 대충 상담
번호표를 뽑은 손이 돌다리 난간을 놓치고/ 물살 아래로 아래로 풍당 떨
어지고 싶다’(〈돌다리〉, 56쪽), ‘만성 피부염을 앓으며 공장을 돌아다니던 신
발’(〈거품〉, 31쪽), ‘일하는 사람의 젖은 작업복을 보면서 한나절을 걱정한

1) 이기인(2010), 《어깨 위로 떨어지는 편지》, 창비, 32-33.

적 있는데'(<소금꽃>, 30쪽), '지난해 기침 소리와 함께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는 새끼줄처럼 기다란 이력서를 썼다/ 아파트 경비원이 되고 싶어서 꺾꺾 공장 수위가 되고 싶어서 꺾꺾/ 눌러쓴 이력서를 꼬르륵꼬르륵 배고픈 편지봉투 속에 넣어 두었다'(<빗자루 이력서>, 58쪽)와 같은 구절에서 엿보이듯 시인의 시선이 가닿는 곳은 가난과 남루의 풍경들이다. 그들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유로 흔들리기 이전에, 먼저 허기로 기우뚱 균형을 잃는다. 그래서 시인이 '우스꽝스럽게 벗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나를 닮아가는 구두짝'은 마치 고흐가 그린 구두를 떠오르게 한다.



1886년 고흐가 그린 이 사소하고 불품없기 짝이 없는 한 켤레의 구두. 윤이 반짝반짝 나는 것도 아닌 이 닳고 해진 구두가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아마도 이 구두가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걷고 뛰고 오르고 내려도 별로 나아지는 것은 없구나. 접히고 밟히고 상처 입고 주글주글 주름만 늘어 간다. 털어도 털어도 떨어지지 않는 흙먼지. 발바닥에 땀이 차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걷고 또 걸어도 풍요와 휴식은 너무나 멀리 있구나.' 대략 이런 이야기를 이 구두가 들려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구두는 '균형을 잃어버린' 자, '소처럼 미안하게 걸어 다니는' 자, '벽에 걸어 놓은 옷에서 흘러내리는 주름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균형을 잡아 주고, 미안함을 덜어 주고, 주름

을 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적인 방법이 있을 테고 사적인 방법이 있을 테다. 복지 정책 같은 것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아마도 ‘사랑’이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 아닐까? 고호가 말하고 있듯 말이다.

“이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간에, 손상된 평판, 가난, 비참한 환경, 불행이 죄수를 만들어 내지. (중략) 이 감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깊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힘이자 신비한 힘으로 감옥을 열게 되는 거지. 그제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아. 그러나 사랑이 부활하는 곳에 인생도 부활하지.”²⁾

구두 그림을 그리기 몇 년 전, 고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문장이다. 이 문장을 우리는 이기인의 시에서도 읽는다. 시인은 비록 균형을 잃었지만, “내일은 소리 없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한다. “더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낳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의 어깨’이다. 그 어깨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초라한 편지를 쓰는 불빛을 걱정하다가 열쇠를 내어 주었다. ‘초라한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초라한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편지는 ‘비루한 생의 모서리를 스쳐간 걸음’(〈첫눈은 간밤에 너무 많은 슬픔을 사냥하였다〉, 54쪽)이 남긴 발자국 같은 것이리라. 그러나 이 초라함은 그것을 걱정해 주는 ‘당신의 어깨’가 있기에 그 초라함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그 어깨는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균형을 잃고 초라한 편지를 쓰는 화자에게 실제로 자신의 방 열쇠를 내어 주고 휴식의 거처를 제공한 인물일 수도 있다. 그 방은 그리 대단한 방은 아니다. ‘밤늦게 지붕을 걸어 다니는

2) 빈센트 반 고호(200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 박흥규 역, 문학동네, 120-121.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별들이 옥상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옥탑방인 경우가 많다. 꼭 그렇진 않더라도 옷을 벽에 걸어 놓고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는 환경이라면 옥탑방보다 크게 나올 것도 없는 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 고려 속에 이 시의 서사를 풀어 보자면 삶에 지친 한 사람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동료로부터 위안과 휴식의 거처를 제공받고 '환하고 넓어질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고 초라한 편지를 쓰는 자에게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어깨를 내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깨에 기대 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러나 살아야지'(<돌다리>, 56쪽)라는 무력한 다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돌다리 쪽으로 유모차와 함께 나온 붓꽃무늬 치마가 걸음을 멈춘다
 아직 돌다리를 건너가지 못한 젖은 걸음이다
 돌다리 옆에서 햇빛처럼 앉아 있는 노인에게 새끼손가락만 한 목도장을
 하나 판다
 돌다리 저 푸른 수심에서 떠오르는 빈곤이 누구네 집 가여운 아기 이름 같다
 목도장은 노루 울음소리처럼 아프게 만져지고 아프게 파진다
 원두콩만 한 멍울을 대낮처럼 하얀 종이 위에 굶주린 듯 여러 개 찍어 본다
 돌다리지점 은행 쪽으로 녹슨 유모차 바퀴소리가 덜덜덜 주저앉는다
 기다란 대출 상담 번호표를 뽑은 손이 돌다리 난간을 놓치고
 물살 아래로 아래로 풍당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살아야지' 출렁출렁한 햇빛이 어깨를 툭 치며 이웃처럼 웃는다
 붓꽃 무늬 치마와 유모차 바퀴가 길의 틈바구니에 낀 민들레처럼 앉아 있다
 갑자기 잠에서 일어난 아기 울음소리가 서러운 빛깔의 돌다리를 건너간다
 어디서 쓸려 온 사람들일까, 돌다리 쪽으로 흠뻑을 묻히고 모여든 사람들
 이제껏 흘러보지 못한 울음을 돌다리 아래로 한주먹씩 흘러보낸다

- 이기인, <돌다리> 중에서

'대출을 소재로 한 편의 시를 쓰시오.'라는 경연이 열렸다고 하자. 이보다 더 아름답게 쓰는 일이 가능할까? 한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돌

다리를 건넌다.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시에서 ‘대출’은 후경으로 물러나고 붓꽃 무늬 치마와 유모차를 탄 아기가 돌다리를 배경으로 전경으로 묘사된다. 그러니까 이 시를 화폭으로 옮기면 ‘붓꽃 무늬 치마와 유모차 바퀴가 길의 틈바구니에 낀 민들레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화폭의 중심에 놓이고 그 하단에 돌다리와 그 밑을 지나는 물살, 그리고 그 건너편의 자그마한 자리에 ‘흙물을 묻히고 모여든 사람들’의 처연한 모습들이 그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을 다시 한번 고희에게서 찾자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구두 그림보다 일 년 앞서 그려진 이 그림 역시 구두 그림과 흡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단하고 누추해 보인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어떤 경건한 진지함 같은 것들이 이 그림에 힘을 싣고 있음 역시 분명해 보인다.

‘배고프다’

뜨거운 감자에 쇠젓가락이 달려가 꽃히는 소리가 굽굽굽굽

극적으로 감자의 세계 끝까지 밀고 나아가서 쇠젓가락이 빠져나온다

감자를 왼 손이 그의 양식을 한 손에 들고 있다
배고픔으로 멍쳐진 감자의 숨소리가 모락모락 김을 뿜어낸다
감자 먹는 사람들의 동그란 그늘이 뜨겁다

- 이기인, <멍쳐진 숨소리> 중에서

이기인의 <멍쳐진 숨소리>는 고희의 <감자 먹는 사람들>의 시적 변주인 듯 보인다. 가난 속에서도 공감과 연민의 유대가 느껴지는 ‘동그란 그늘이 뜨겁다’라는 절창에서는 언뜻 ‘당신의 어깨’를 다시 한 번 감지할 수 있다. 감자로 연명해야 하는 삶이라면 대출 상담을 기다리다가 ‘물살 아래로 풍당 떨어지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러나 이 절명의 순간에 또 한번 내미는 ‘당신의 어깨’.

‘그러나 살아야지’ 출렁출렁한 햇빛이 어깨를 툭 치며 이웃처럼 웃는다

이 얼마나 따사롭고 아름다운 햇빛인가! 이러한 햇빛이 있다면 비록 ‘길의 틈바구니에 낀 민들레’ 같은 삶일지라도 “그러나 살아야지!”라고 되뇌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햇빛만으로 접시 위의 음식이 감자에서 고기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선적인 시혜의 고기를 하사 받는 일보다 가만히 어깨를 내어 주며 모락모락 김을 뿜어내는 감자를 나누는 일이 좀 더 살 만한 일의 출발이지 않을까? 물론 이와 같은 말이 빈자를 방치하는 무심한 정책의 보호막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적인 구제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번드르르한 말과 정책을 쏟아낸다 한들, 사랑이 없다면 그저 울리는 징에 불과한 것이리라.

